

### 봄철 가스안전관리

겨우내 얼었던 도로나 축대, 교량 등이 해빙기를 맞아 파손되거나 붕괴되면 설치된 가스 시설물이 손상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

#### ◎ 해빙기 가스시설 점검은 이렇게

LPG의 경우, 겨우내 혹한으로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비가 들이치지는 않았는지, 또 물이 피거나 용기받침대나 용기를 묶어놓은 체인이 녹슬지는 않았는지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조정기, 배관이나 호스의 상태, 연결부위도 점검해 준다. 호스는 3m이내의 길이로 시공하게 되어 있으나,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겨우내 혹한으로 호스 등의 연결부위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은데 호스상태가 좋지 않으면 새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지하에 매몰된 배관이 지반이 녹으면서 손상될 우려가 있으나 이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전문장비를 이용해 관리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경우 집안내의 배관 손상여부를 점검해주는 것이 좋겠다.

LPG를 사용하는 가정과 마찬가지로 도시가스 관리사무소에 의뢰하여 배관과 호스, 호스와 연소기의 연결부위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해야한다.

#### ◎ 이사할 때 가스시설 철거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봄은 이사를 많이 하는 계절로 이사로 인하여 가스기구를 옮기는 경우가 많고 가스난로와 보일러 사용을 갈무리하게 되는 계절이다. 이런 때 가스기구를 떼어내고 난 다음 호스 막음 조치를 잘해 주는 것은 필수사항이다.

만약 가스배관을 고무 테이프나 비닐 등을 이용해 대충 막아두고 "이래도 되겠지?" 하며 그대로 이사를 간다면 대형 가스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다.

따라서, 이사할 때에는 반드시 LP가스판매업소나 도시가스회사 지역관리소에 연락하여 규정된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의뢰, 가스시설의 마감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하고, 이사 후에도 전문시공자에게 의뢰하여 설치하는 것이 가스사고를 방지하는 지름길이다.

### 여름철 가스안전관리

#### ◎ 가스용기 관리는 이렇게

LP가스 용기는 직사광선이 들지 않도록 따로 보관실에 보관하도록 해야한다. 복사열이나 외부조건에 의해 안전밸브의 폭발로 가스가 누출될 수도 있으며 불별더위가 계속될 경우 장독대나 옥상 등 옥외에 보관중인 가스용기 등은 위험하므로 차광막을 설치해야 한다.

#### ◎ 휴가의 시작은 가스시설 점검으로부터

휴가나 여행등 장기간 집을 떠나는 경우에는 가스연소기의 콕은 물론 중간밸브를 잠그고

LPG는 용기밸브, 도시가스는 계량기옆에 설치되어 있는 메인밸브까지 잠궜 두는 것이 안전하다.

휴가를 즐기는 기간동안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이동식 부탄연소기와 부탄가스이다. 이 때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조리하기 위해 삼발이 폭보다 무리하게 큰 그릇을 올려놓고 사용하면 복사열로 인해 부탄가스의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할 때 이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다 쓴 용기는 반드시 구멍을 뚫어서 버려야 한다.

휴가를 끝낸 후 집으로 돌아와 가스시설을 다시 사용하기 전에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각 가스시설의 이음새 부분을 점검액(비눗물)으로 점검하고 나서 사용해야 안전하며 태풍이나 폭염에 가스시설이 노출되지 않았는지 체크하고 나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이상이 발견되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해당 지역관리소에, LPG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판매소에 연락해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나서 사용하는 것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생활의 지름길이다.

### ◎ 장마철 가스안전관리 요령

#### 장마철을 대비하여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 시설 중에 호스와 가스용품, 배관과 용기, 배관과 호스등 연결부분이 잘 조여져 있는지 살펴보고 오래된 시설은 가스누출의 위험이 높으므로 미리 교체해 주어야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장마철에는 대기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누출된 LPG가스의 경우 공기중으로 확산되지 않고 바닥 같은 낮은 곳에 체류하므로 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서의 가스안전관리 요령

집중 호우로 인해 침수가 예상될 경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중간밸브 뿐만 아니라 계량기 옆의 메인 밸브까지 잠궜고 대피해야 하고, LPG를 사용하는 가

정은 용기에 부착된 용기밸브를 잠궜고 체인 등을 이용, 안전한 장소에 고정시켜 놓고 대피해야 한다.

### 침수지역에서의 가스시설 복구할 때의 안전관리요령

도시가스 및 LPG가스 시설 모두 한국가스안전공사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LPG가스 시설의 경우 가스시설이 유실되거나 가스용기 자체가 물에 잠기게 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가스렌지 및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복구할 때는 진흙과 같은 이물질을 깨끗한 물로 씻어 완전히 말리고 난 후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 침수되었던 가스시설 이렇게 사용하면 절대 안된다 !!!

LPG 용기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조절기가 있는데 조절기가 물에 젖었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하고 LPG 용기에 부착된 밸브를 돌릴 경우, 조절기 내부의 고무 패킹이 찢어지면서 제 기능을 못하여 용기 내부의 고압가스가 그대로 방출되거나 고압가스가 호스를 이탈시켜 가스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절기를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된다.

물에 젖었던 가스보일러를 점검 받지 않은 채 전원 플러그를 꽂으면, 보일러 내부의 기기판이 타버리는 것은 물론이며, 안전장치가 타서 가스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침수후 점검을 받지 않은 채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가스보일러의 배기통에 물이 찬 것을 모르고 보일러를 가동시킬 경우, 보일러에서 나오는 폐가스가 실내로 유입,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보일러 자체가 그을려 보일러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일러사의 A/S받고 나서 사용해야 한다.■

(자료제공 : 동작소방서)

